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http://www.ccej.or.kr)  with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엄기홍)
- 문의 : 경실련 정책국(김성달 국장, 정택수 부장, 서희원 간사, 02-3673-2141)
- 시행 : 2022.07.25.(총 19매)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9.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꼴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사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sup>1)</sup>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8.0억원, 무소속 7.6억원, 정의당 2.7억원, 진보당 2.2억원 순이었다.

1)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표 1] 당선자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구분	당선자 수 (A)	총 재산 (B)	1인당 재산 평균 (B/A)
더불어민주당	1,774	1,413,791	797
국민의힘	2,132	2,489,350	1,168
정의당	9	2,450	272
진보당	21	4,698	224
무소속	166	126,023	759
당선자(4,102명) 합계		4,036,312	984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당선자가 1인당 평균 24억원을 신고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시·군·장 19.7억, 사·도의회의원 11.3억, 광·역·의·원·비·례·대·표가 10.5억원으로 평균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하였다. 다음으로 구·시·군·의·회·의·원 8.7억, 기·초·의·원 비례대표 7.8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13억, 서울특별시 12.8억, 경상북도 11.2억, 대구 11.5억, 부산 11억, 경기도 10.4억, 울산 10억 순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시도는 7억~9억원으로 전체 당선자 1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9.8억)보다 낮게 나타났다.

재산 구간별로 보면 당선자 4,102명 중 국민 평균 재산 4.1억 이상을 소유한 당선자는 2,487명으로 전체 61%에 해당한다. 10억 이상 재산 신고한 당선자는 1,229명(30%)이며, 이 중에서 30억 이상~50억 미만 160명, 50억 이상~100억 미만 70명, 100억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액 100억 이상인 당선자(16명)에는 국민의힘 조성명 강남구청장(519억),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267.3억), 국민의힘 김성수 경기도의회의원(194.4억),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경기성남시의회의원(184.6억), 국민의힘 박영서 경북도의회의원(166.5억), 국민의힘 김용현 경북도의회의원(163.9억), 국민의힘 양용만 제주도의회의원(162억),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전남도의회의원(144.1억), 국민의힘 이인구 부산중구의회의원(137.7억), 국민의힘 박규탁 경북비례대표(136.7억), 국민의힘 김지훈 경기도남양주시의회 의원(118.7억),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도의회 의원(117.6억),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광주남구의회의원(114.9억), 국민의힘 김웅 충남서천군수(108.9억),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전북전주시의회의원(107.3억),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부산사하구의회의원(104.9억) 등이 포함됐다. 상위 16명의 평균재산은 171.8억원이며, 이 중 9명은 지역 소재 위원회 등 전·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지회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시·군·장 3명, 시·도·의·회 의원 6명, 구·시·군·의·회 의원 6명, 비례의원 1명으로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이다.

[표 2] 재산 신고 100억 이상 당선자

(단위 : 백만 원 /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선거유형	지역	소속정당	후보자 등록 때 신고			
					전과	재산	직업	경력
1	조성명	구시군장	서울	국민의힘	0	51,902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6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li> <li>•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전문위원</li> </ul>
2	최경식	구시군장	전북	더불어민주당	0	26,726	원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li> <li>•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li> </ul>
3	김성수	시도의회의원	경기	국민의힘	1	19,436	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초이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li> <li>• (현)광암·초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li> </ul>
4	서은경	구시군의회의원	경기	더불어민주당	0	18,462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성남시의원</li> <li>• (전)삼성물산주식회사 근무</li> </ul>
5	박영서*	시도의회의원	경북	국민의힘	1	16,647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경시생활체육회장</li> <li>• (현)경상북도의회의원</li> </ul>
6	김용현*	시도의회의원	경북	국민의힘	1	16,386	동아유치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아유치원 원장</li> <li>• (현)국민의힘 구미시(갑) 당협 부위원장 회장</li> </ul>
7	양용만	시도의회의원	제주	국민의힘	1	16,201	우리농장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한국제이씨특우회 제주 지구 회장</li> <li>• (현)한림읍발전협의회 회장</li> </ul>
8	이동현*	시도의회의원	전남	더불어민주당	1	14,41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전라남도의회 의원</li> </ul>
9	이인구	구시군의회의원	부산	국민의힘	0	13,772	(주)그린스포츠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중구 새마을 지회장</li> <li>• (현)(주)그린스포츠이사</li> </ul>
10	박규탁	광역의원 비례대표	경북	국민의힘	4	13,671	회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국민의힘경북도당대변인</li> <li>• (현)경북경영자총협회이사</li> </ul>
11	김지훈*	구시군의회의원	경기	국민의힘	0	11,87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남양주시의회의원</li> <li>• (전)남양주점프버룩시장서부권 회장</li> </ul>
12	김용래	시도의회의원	강원	국민의힘	0	11,764	김남동 내과의원 사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회 권성동 의원실 비서</li> <li>• (전)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보좌역</li> </ul>
13	황경아	구시군의회의원	광주	더불어민주당	0	11,488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7대, 제8대 남구의회 의원</li> <li>• (현)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운영위원</li> </ul>
14	김기웅	구시군장	충남	국민의힘	0	10,885	(자)해양선박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자)해양선박 대표이사</li> <li>• (전)서천군수협조합장</li> </ul>
15	이기동	구시군의회의원	전북	더불어민주당	1	10,729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11대 전주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li> <li>• (전)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li> </ul>
16	한정옥	구시군의회의원	부산	더불어민주당	0	10,49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사하구의회의원</li> </ul>
100억 이상 재산 보유 당선자 평균					0.6	17,177		

\* 는 무투표 당선자를 표시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정당에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 부동산 투기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민 평균 재산보유액을 훨씬 넘는 부자들이 대거 공천된 것을 보면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엄격한 부적격 배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의심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통하여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투기 의혹 등이 있는 다주택자나 부동산부자 등 자질 없는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지역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밀실공천으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현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책임은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감감이 밀실 공천을 방조한 거대 정당에 있다. 양대 정당은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 (2022.5.2.)에 대하여 당헌 당규에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대답하였지만, 이번 분석 결과 시도당 차원에서 그러한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공천 개혁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경실련의 질의서에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시도·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 이라고 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의 답변대로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양대 정당 모두 공천 심사에 대한 회의록은 대외비라는 입장으로 밀실 공천 지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의지가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자질 없는 후보를 대거 공천하여 지역일꾼을 원하였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공천 심사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의 부동산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 표 3 ] 거대양당 공천 관련 내용(당헌당규 및 경실련 답변)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적격 배제 기준 관련	당헌당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규 제10호 제6조] <b>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b> 4.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5. <b>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14조] <b>추천 대상 배제 기준</b>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뇌물 알선 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 의결한 범죄경력</li> </ul>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에 의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후보자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친 후보자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부정부패 △선거범죄 △파렴치 및 민생범죄 등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함</li> <li>•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각급 검증위에서는 공정하고 엄밀한 검증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비리 경력자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u>당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는 상기의 배제 기준을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u></li> <li>• 또한 <u>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서울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u></li> </ul>
회의록 공개 관련	당헌당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규 제1호 제12조] 시·도당대의원대회, 시·도당사무위원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li> <li>• [당규 제10호 제12조]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정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당 대표에게 보고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41 조]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li> </ul>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규 제1호제12조에 의거, 회의록은 대외비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는 불가함</li> <li>• 단, 당헌 제87조에 의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는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한 공관위의 경우에도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은 당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대외비로하며, 회의록을 대외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li> <li>• 이는 귀 기관이 제안한 배제 기준을 심사과정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li> <li>•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회의 종료 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음</li> <li>•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외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공천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li> </ul>

※ 별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분석 결과

2022년 07월 25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분석 결과

## 1. 조사 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선거·공천선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 시민캠페인 등의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강력범죄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등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공천 배제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전면 공개 및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될 시 무공천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6.1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등 취약한 틈을 타 각 정당은 자질 없는 후보자들을 또다시 공천하였다.

경실련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거대 양당의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하여 자질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진실로 지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당선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연속기획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으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꽃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번에는 당선자 전체의 재산 분석을 통하여 지역유지, 토착세력 등 소위 말하는 '가진자들의 지역 나누어 먹기식' 실태를 고발하고 제대로 된 지역일꾼이 나설 수 있도록 공천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표 1] 조사대상 개요(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합 계
시도지사	5	12	0	0	0	17
구시·군장	63	145	0	1	17	226
시도의회의원	280	491	0	3	5	779
구시·군의회의원	1,218	1,216	6	17	144	2,601
광역비례대표	42	49	2	0	0	93
기초비례대표	166	219	1	0	0	386
합 계	1,774	2,132	9	21	166	4,102

### □ 조사 내용

-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의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 조사

### □ 조사 자료

- 2022년 5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학력, 경력, 재산, 병역, 전과 등)
- 2022년 6월 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명부(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 3. 분석 결과

#### □ 당선자 전체 재산 신고 현황

-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총 신고 재산은 약 4조 3백 6십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억 8천만 원임. 이는 국민 평균 재산 4.1억 원<sup>2)</sup>의 약 2.4배 수준
-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총 2조 4천 8백 9십억 원을 신고하여, 1인당 재산 평균이 11억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음. 더불어민주당 8억 원, 무소속 7억 6천만 원, 정의당 2억 7천만 원, 진보당 2억 2천만 원 순임
-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전체 당선자 4,102명의 1인당 재산 평균 9억 8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진보당의 5.2배, 정의당의 4.3배

[표 2] 당선자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구분	당선자 수 (A)	총 재산 (B)	1인당 재산 평균 (B/A)
더불어민주당	1,774	1,413,791	797
국민의힘	2,132	2,489,350	1,168
정의당	9	2,450	272
진보당	21	4,698	224
무소속	166	126,023	759
당선자(4,102명) 합계		4,036,312	984

2)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민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 선거유형별 당선자 재산 신고 현황

-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당선자가 평균 24억 원을 신고하여 가장 높음
- 구시군장, 시도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각각 1인당 평균 10억 원 이상을 신고함
- 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당선자 전체 1인당 재산 평균(9억 8천 4백만 원)에는 못 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평균 재산(4.1억 원)과 비교하였을 때, 구시군의회의원은 약 2.1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약 2배 가량 많은 재산을 보유함

[표 3] 선거유형별 당선자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구분	당선자 수 (A)	총 재산 (B)	1인당 재산 평균 (B/A)
시도지사	17	40,826	2,402
구시군장	226	445,519	1,971
시도의회의원	779	882,151	1,132
구시군의회의원	2,601	2,267,644	872
광역의원 비례대표	93	97,550	1,049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	302,622	784
합 계	4,102	4,036,312	984

- 당선인의 평균 재산은 후보자 전체의 평균 재산보다 1억 3천만 원 높음. 후보자(7,531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5천 9백만 원임. 선거유형별로는 모두 후보자 재산 평균보다 많았으며, 구시군장, 시도지사, 광역의원 비례대표 순으로 신고액의 차이가 큼

[표 4] 7대·8대 지방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1인당 재산 평균 비교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구분	제7대 후보자 (2018년)	제8대 후보자 (2022년)	제8대 당선자 (2022년)
시도지사	2,753	1,980	2,402
구시군장	1,028	1,520	1,971
시도의회의원	792	980	1,132
구시군의회의원	602	750	872
광역의원 비례대표	590	636	1,049
기초의원 비례대표	628	713	784
1인당 재산 평균	1,070	859	984

□ 재산신고액 상위 100억 이상 당선자 현황

[표 5] 재산 신고 100억 이상 당선자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선거유형	지역	소속정당	후보자 등록 때 신고			
					전과 건수	재산	직업	경력
1	조성명	구시군장	서울	국민의힘	0	51,902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제6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li> <li>(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li> </ul>
2	최경식	구시군장	전북	더불어민주당	0	26,726	원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li> <li>(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li> </ul>
3	김성수	시도의회의원	경기	국민의힘	1	19,436	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초이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li> <li>(현)광암·초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li> </ul>
4	서은경	구시군의회의원	경기	더불어민주당	0	18,462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성남시의원</li> <li>(전)삼성물산주식회사 근무</li> </ul>
5	박영서*	시도의회의원	경북	국민의힘	1	16,647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경시생활체육회장</li> <li>(현)경상북도도의회의원</li> </ul>
6	김용현*	시도의회의원	경북	국민의힘	1	16,386	동아유치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동아유치원 원장</li> <li>(현)국민의힘 구미시(갑) 당협 부위원장 회장</li> </ul>
7	양용만	시도의회의원	제주	국민의힘	1	16,201	우리농장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사)한국제이씨특우회 제주지구 회장</li> <li>(현)한림읍발전협의회 회장</li> </ul>
8	이동현*	시도의회의원	전남	더불어민주당	1	14,41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전라남도의회 의원</li> </ul>
9	이인구	구시군의회의원	부산	국민의힘	0	13,772	(주)그린스포츠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중구 새마을 지회장</li> <li>(현)(주)그린스포츠이사</li> </ul>
10	박규탁	광역의원비례대표	경북	국민의힘	4	13,671	회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국민의힘경북도당 대변인</li> <li>(현)경북경영자총협회이사</li> </ul>
11	김지훈*	구시군의회의원	경기	국민의힘	0	11,87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남양주시의회의원</li> <li>(전)남양주점프벼룩시장서부권회장</li> </ul>
12	김용래	시도의회의원	강원	국민의힘	0	11,764	김남동내과의원 사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회 권성동 의원실 비서</li> <li>(전)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보좌역</li> </ul>
13	황경아	구시군의회의원	광주	더불어민주당	0	11,488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제7대, 제8대 남구의회 의원</li> <li>(현)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운영위원</li> </ul>
14	김기웅	구시군장	충남	국민의힘	0	10,885	(자)해양선박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자)해양선박 대표이사</li> <li>(전)서천군수협조합장</li> </ul>
15	이기동	구시군의회의원	전북	더불어민주당	1	10,729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운영위원장</li> <li>(전)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li> </ul>
16	한정옥	구시군의회의원	부산	더불어민주당	0	10,49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사하구의회의원</li> </ul>
100억 이상 재산 보유 당선자 평균					0.6건	17,177		

\* 는 무투표 당선자를 표시

- 당선인 중 10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경우도 16명이나 되며 평균 재산 신고액은 171억 7천 7백만 원임.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국민의힘의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19억 원을 신고함. 두 번째로 신고액이 많은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경식 남원시장으로 267억 3천만 원을 신고함
- 100억 이상 재산 신고 당선자의 중 국민의힘이 10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구시군장 3명, 시도의회의원이 6명, 구시군의회의원 6명, 광역의원비례대표 1명이 포함됨
-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기도가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과 부산이 2명, 제주, 전남, 광주충남, 강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남
- 이 중 9명은 지역 소재 위원회 등의 전현직 위원장, 부위원장, 지회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은 (전) 국회의원실 비서 경력을 신고하였음. 이외 전현직 의원이거나 의장, 부의장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7명은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박규탁 광역비례대표는 4건이나 전과 경력을 보유함. 무투표 당선자도 4명이나 포함되었음

□ 선거유형별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표 6] 시도지사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건수	재산신고액	직업	경력
1	오세훈	서울	국민의힘	0	5,902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38대 서울특별시장</li> <li>• (전)제16대 국회의원</li> </ul>
2	박형준	부산	국민의힘	0	4,684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부산광역시장</li> <li>• (전) 국회사무총장</li> </ul>
3	김진태	강원	국민의힘	0	4,072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19, 20대 국회의원</li> <li>• (전)춘천지검 원주지청장</li> </ul>
4	김동연	경기	더불어민주당	0	4,054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li> <li>• (전) 아주대학교 총장</li> </ul>
5	홍준표	대구	국민의힘	1	3,893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li> <li>•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li> </ul>
<b>시도지사 상위 5위 평균</b>					<b>4,521</b>		

- 시도지사 당선자 중 서울특별시 오세훈 후보자가 59억 원을 신고하여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상위 5위 평균 45억 2천 1백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산 보유 상위 5명 중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당선자 전부 시장, 국회의원, 장관 등의 정치적 경력을 보유함

[표 7] 구시군장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건수	재산신고액	직업	경력
1	조성명	서울	국민의힘		51,902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6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li> <li>•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li> </ul>
2	최경식	전북	더불어민주당		26,726	원광대겸임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li> <li>•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li> </ul>
3	김기웅	충남	국민의힘		10,885	(자)해양선박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자)해양선박 대표이사</li> <li>• (전)서천군수협조합장</li> </ul>
4	박남서	경북	국민의힘	1	9,851	영주 산업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영주시의회 의장</li> <li>• (전) 국민의힘 영주시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li> </ul>
5	박종우	경남	국민의힘	1	8,911	거제 경제혁신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거제축산협동조합 조합장</li> <li>• (전)미조건설주식회사 대표</li> </ul>
구시군장 상위 5위 평균				0.2건	21,655		

- 구시군장 당선자 중 재산신고액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19억 2백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전체 당선자 중에서 가장 부유한 것으로 나타남
- 구시군장 당선자 재산 상위 5명 가운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4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위 평균 신고 재산은 216억 5천 5백만 원임. 전과를 보유한 당선자는 박남서(경북), 박종우(경남)임

[표 8] 시도의회의원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건수	재산신고액	직업	경력
1	김성수	경기	국민의힘	1	19,436	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초이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li> <li>• (현)광암·초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li> </ul>
2	박영서*	경북	국민의힘	1	16,647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경상북도의회의원</li> <li>• (전)문경시생활체육회장</li> </ul>
3	김용현*	경북	국민의힘	1	16,386	동아유치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국민의힘 구미시(갑) 당협 부위원장 회장</li> <li>• (전)동아유치원 원장</li> </ul>
4	양용만	제주	국민의힘	1	16,201	우리농장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한림읍발전협의회 회장</li> <li>• (전)(사)한국제이씨특우회 제주지구 회장</li> </ul>
5	이동현*	전남	더불어민주당	1	14,41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11대 전라남도의회의원</li> <li>• (현)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위원</li> </ul>
시도의회의원 상위 5위 평균					16,616		

\* 는 무투표 당선자를 표시

- 시도의회의원 중 재산신고 1위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으로 194억 3천 6백만 원을 신고 상위 5위 평균 재산신고액은 166억 1천 6백만 원이며,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해당됨
- 시도의회의원 재산 신고 상위 5명의 경우 전부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2명, 경기, 제주, 전남이 각각 1명임
- 무투표 당선자도 3명(경북, 국민의힘 박영서 당선자, 김용현 당선자와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당선자)이 포함됨

[표 9] 구시군의원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 건수	재산 신고액	직업	경력
1	서은경	경기	더불어민주당	0	18,462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성남시의원</li> <li>• (전)삼성물산주식회사 근무</li> </ul>
2	이인구	부산	국민의힘	0	13,772	(주)그린 스포츠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주)그린스포츠이사</li> <li>• (전)중구 새마을 지회장</li> </ul>
3	김지훈*	경기	국민의힘	0	11,87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남양주시의회의원</li> <li>• (전)남양주점프북시장서 부권회장</li> </ul>
4	황경아	광주	더불어민주당	0	11,488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7대, 제8대 남구의회의원</li> <li>• (현)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운영위원</li> </ul>
5	이기동	전북	더불어민주당	1	10,729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11대 전주시의회의원 운영위원장</li> <li>• (전)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li> </ul>
<b>구시군의원 상위 5위 평균</b>					<b>13,264</b>		

\* 는 무투표 당선자를 표시

- 구시군의원 중 재산신고액 1위는 경기도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으로 184억 6천 2백만 원을 신고함. 상위 5위 평균 재산 신고액은 132억 6천 4백만 원으로 5명 모두 1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 해당됨
- 경기, 국민의힘 김지훈 당선자는 무투표로 당선됨

[표 10] 광역비례대표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건수	재산 신고액	직업	경력
1	박규탁	경북	국민의힘	4	13,671	회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국민의힘경북도당대변인</li> <li>(현)경북경영자총협회이사</li> </ul>
2	조희선	경기	국민의힘	1	7,82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li> <li>(전)제20대 대선 경기도 선대위 여성정책특위위원장</li> </ul>
3	김경숙	경북	더불어민주당	0	5,347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협의회여성위원장</li> <li>(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문경지회부회장</li> </ul>
4	문영미	부산	국민의힘	0	4,549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장</li> <li>(전)금정전자고등학교 교사</li> </ul>
5	김민수	충남	더불어민주당	2	3,162	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한국4-H중앙연합회회장</li> <li>(전)부여군의회의원</li> </ul>
광역비례 상위 5위 평균					6,910		

○ 비례대표 재산 신고액 1위는 경북의회 국민의힘 박규탁 의원으로 136억 7천 1백만 원을 신고함. 상위 5명 평균 신고 재산은 평균 69억 1천만 원. 기초 비례대표 재산 신고액 1위는 경기도 구리시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으로 79억 9천 6백만 원을 신고함. 상위 5위 평균 재산은 56억 6천 3백만 원

- 두 유형 다 국민의힘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전과 경력 보유 평균 건수가 가장 높음

[표 11] 기초비례대표 재산 신고 당선자 5위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순위	당선자	지역	소속정당	전과건수	재산 신고액	직업	경력
1	이경희	경기	국민의힘	1	7,996	유치원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구리여자고등학교 총동 문화장</li> <li>(현)경기도 사람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li> </ul>
2	차대식	대구	국민의힘	1	5,803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구 북구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장</li> </ul>
3	배심교	경남	더불어민주당	0	5,590	정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한울데이케어 재가복지 센터 센터장</li> <li>(전)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 합안창녕 여성위원장</li> </ul>
4	정미섭	경기	더불어민주당	0	5,290	시락푸드 주식회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오산컨벤션 웨딩홀 뷔페 대표</li> <li>(현)새마을금고 이사</li> </ul>
5	이명애	강원	국민의힘	0	4,635	자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속초여자고등학교 총동 창회 사무총장</li> <li>(현)속초여자고등학교 운영 위원장</li> </ul>
기초비례 상위 5위 평균					5,863		



□ 당선자 재산 신고 구간별 현황

- 당선자 4,102명 중, 국민 평균 재산 4.1억 미만을 소유한 당선자는 1,615명으로 전체 39%에 해당함
- 4.1억 이상 10억 미만 보유자가 1,258명(31%), 10억 이상~30억 미만이 983명(24%), 30억 이상 50억 미만이 160명(4%)으로 나타남
-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자도 70명(2%)이며, 100억 이상 재산 신고 당선자도 16명(1%) 존재함

[그림 1] 당선자 재산 신고 구간별 현황

(단위: 명)

당선자 재산 신고 구간별 조회	
4.1억 미만	1,615
4.1억 이상 10억 미만	1,258
10억 이상~30억미만	983
30억 이상 50억미만	160
50억 이상 100억 미만	70
100억 이상	16

□ 지역별 당선자 평균 재산 신고 현황

[그림 2] 지역별 당선자 평균 재산 신고 금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당선자 재산 신고 지역별 평균 금액	
강원도	862
경기도	1,041
경상남도	834
경상북도	1,116
광주광역시	851
대구광역시	1,150
대전광역시	700
부산광역시	1,096
서울특별시	1,279
세종특별자치시	734
울산광역시	998
인천광역시	819
전라남도	818
전라북도	771
제주특별자치도	1,309
충청남도	818
충청북도	885
평균	984



- 당선자 1인당 재산신고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3억 원 수준임
- 이어서 서울특별시 12억 7천 9백만 원, 경상북도 11억 1천 6백만 원, 대구광역시 11억 5천만 원, 부산광역시 10억 9천 6백만 원 순임
- 그 외에 경기도(10억 4천 백만 원)와 울산광역시(9억 9천 8백만 원)는 상기의 상위 5위의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며, 나머지 시도는 7억~9억 원으로 전체 당선자 1인당 평균 재산 보유(9억 8천 만 원)액보다 낮았음

□ 무투표 당선자 재산 현황

- 무투표 당선자의 총재산 신고액은 약 5,47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1억 원을 신고함
-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 223명의 총재산은 2,9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억 원을 신고하였음. 더불어민주당은 2,568억 원으로 1인당 재산 평균 9억 6천만 원을 보유함

[표 12] 무투표 당선자 재산 신고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준 : 재산 신고 총액)

구분	당선자 수 (A)	총 재산 (B)	1인당 재산 평균 (B/A)
더불어민주당	266	256,851	966
국민의힘	223	290,414	1,302
<b>무투표 당선자(489명*) 합계</b>		<b>547,265</b>	<b>1,119</b>

\*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이나 정당과 무관한 교육위원은 제외함

## 4. 결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의 재산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억 8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4.1억 원의 약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 평균 4.1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당선자가 2,487명으로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0억 이상 246명 이며, 이중 100억 이상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일꾼을 뽑는 공천 기준이 보유 재산이었는지,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인당 재산 평균이 11억 6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더불어민주당 8억 원, 무소속 7억 6천만 원 순임.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당선자가 평균 24억 원, 구시군장, 시도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각각 평균 10억 원 이상을 신고하여 시도지사가 가장 높음

특히 100억 이상 재산을 신고한 당선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71억 7천 7백만 원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며, 유형별로는 시도의회의원이 6명, 구시군장 3명, 구시군의회의원 6명, 광역의원비례대표 1명으로 나타남

100억 이상 재산 보유 당선자 전부, 의장, 의원 혹은 지역 소재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지회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7명은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무투표 당선자도 4명이나 포함됨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역일꾼들이 대거 당선되기를 국민은 요구하였음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게 부동산 투기·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파렴치 범죄 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여 중앙정치인 위주의 내리꽂기 식 낡은 공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하지만 이번 재산 조사 결과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보유한 부자 당선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이 정당한 공천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이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심복, 충성을 다하는 사람,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 및 기득권층을 공천한 것은 아닌지, 지역민을 위한 일꾼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위 맞추기 등을 통하여 밀실·정실 공천을 자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움

경실련은 공천 기준 강화 및 투명 공천을 위하여 엄격한 공천 기준의 확립, 공천 과정 공개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함. 또한 정당 차원에서 당선자들의 범죄 등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재공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를 보여야 함. 부패 전력이 있는 기존의 정치인을 공천 배제하고, 지역과 지역민을 우선시하는 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함